

GRIPS-UT Macroeconomics and Policy Workshop 출장보고서

1. 출장개요

- 목 적: GRIPS-UT Macroeconomics and Policy Workshop 참석
- 출 장 지 : 일본 도쿄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GRIPS)
- 출 장 자 : 이수련 부연구위원
- 출장일정 : 10.31 ~ 11. 2(2박 3일)
 - 10. 31(수) 출국 (김포 → 도쿄)
 - 10. 31(수) ~ 11. 2(금)
 - [GRIPS-UT Macroeconomics Workshop 참석]
 - 장 소: 일본 도쿄 GRIPS
 - 주 제: “거시경제학과 불평등: 데이터, 모형을 통한 활용”
 - 일 정: 학회 1일차 - 11월 1일(목) 9:15am~5:15pm
학회 2일차 - 11월 2일(금) 9:00am-12:10pm
 - 11. 2(금) 귀국 (도쿄 → 김포)

2. 주요 활동 내용

가. “Demographics and the European Divide” by Espen Henriksen,
BI Norwegian Business School

- 인구구조의 변화는 실제 그 나라의 생산성의 변화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특히 늘어나는 인간의 기대수명은 개별 경제주체의 노동공급과 저축에 영향을 주기에 경제의 균형상태에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 본 연구는 기존의 생산추계(Growth Accounting)를 하는 데 단순화를 위해 사용되어왔던 20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인구가 생산가능 인구를 구성한다는 가정을 완화한 뒤, 각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노동공급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지 추정해 본다.
- 이를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 연령대 별 생존율을 시대별로 추정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해 구현한다. 나이별 생산성과 노동공급에 따른 효용의 감소량을 1995년도 경제상황을 토대로 추정하여 고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한다.
- 이러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추가적인 검증 (external validation)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자들의 가정과는 다르게 1995년도 데이터 또한 균제상태에 도달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 연구자들은 인구구성의 변화를 도입한 상태에서 동시에 개별 경제주체들의 최적 행동도 변화하게 하고 두 균형상태를 비교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

른 효과는 사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라 파생된 General Equilibrium Effects가 혼재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구조를 변화시키지만 경제내 가격의 변화는 고정된 상태를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두 효과를 구별하는 모의실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은 유럽 국가이나, 실제 연구방법론은 우리나라의 가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쉽게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추가적인 활용 예로써 연금제도의 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노동공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생산성 변화효과에 대한 분석도 유용한 분석도구라 생각된다.

나. Assets and Job Choice: Student Debt, Wages, and Job Satisfaction by Mi Luo, Emory University

- 개인의 경제 상황이 직업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실제로 직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 뿐 아니라 그 직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비임금적 혜택 (amenity)를 포함한다.
 - 예를 들어, 어떠한 직업은 본인의 적성에 더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개인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이때 이러한 혜택은 시장에서 교환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며 임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substitute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수한 재화라 할 수 있다.
- 실제 미국의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대학을 졸업할 당시 많은 양의 학자금대출을 갖고 있는 학생일 경우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나, 이들의 직업 만족도는 학자금대출의 양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이러한 데이터 관측치를 활용하여 실제 대학 졸업자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노동시장 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데이터 관측치에 유사하도록 캘리브레이션 한 뒤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 가져올 수 있는 후생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동기가 된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연구자들의 주장뿐 아니라 다른 대체가능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우선 본 연구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의 직업 만족도가 학자금 대출이 많을수록 높으며, 이는 그들이 근무하는 직장이 혜택을 조금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나쁠수록 심리적 불행 또한 악화되기에 이들의 불행을 객관적인 직업의 질이 낮기때문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직업이 제공하는 혜택 중 유급휴가 일수, 직업교육의 기회와 같은 변수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정책적 함의를 갖는 경제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 또한 개인의 학자금 대출 규모 또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연구자들은 실증분석에서 간과하고 있다. 학생들은 5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고, 다양한 종류의 합격/재정지원 옵션을 갖게되며 이 중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
-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의 학자금대출과 청년실업문제를 고려할 때,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만족도 및 구직패턴에 대한 조

사가 추후 정책논의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다. “Hours, Occupations, and Gender Differences in Labor Market Outcomes” by Gueorgui Kambourov, University of Toronto

- 직업 별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면 근무시간과 임금사이에 유의미한 패턴이 관측된다.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의 근무시간(예: 의사)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예: 건설노동자, 청소부)의 평균 근무시간은 고소득자들보다 낮다.
 - 이는 시간과 직업군은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고숙련 고소득 직종에 종사한다면 이는 강도 높은 긴 근무시간을 요구하는 데 반해, 저숙련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이들의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 실제 직업의 특성이 기술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주어진 제약하에서 사람들의 노동공급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는 2가지 산업이 있는 로이모델을 활용하여 개인의 여가-노동공급 선택이 여성과 남성에게서 어떻게 다르게 발생하는 지, 이러한 선택 중 얼마만큼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차이에 기인하는 지 분석하였다.

- 실제 데이터에서 관측되는 남녀 임금 격차의 약 삼분의 이 가량은 동일한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 내에서 관측된다.
 - 1986년부터 1995년도 미국의 Current Population Survey를 활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직군별 분포, 그리고 개별 직군내 근무 시간, 소득을 비교하였다.

- 이를 통해 미국의 여성들은 같은 직군에 근무하는 남성보다 평균 근무시간이 낮으며, 근무시간의 편차또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러한 차이는 시대별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특히 고소득 직군에서 낮은 근무시간은 임금에 비선형적으로 더 큰 부정적 효과를 갖고 오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만약 미국의 남녀 임금격차를 구성하는 직종간 근무시간의 차이가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한국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흔히 고소득, 고학력 직종 여성들의 혼인률 및 출산률 감소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야근을 하지 않도록 강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만약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직종이 높은 근무시간을 요구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일 수 있다. 그 경우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는 고소득 근로자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더 높은 패널티를 지불해야함을 고려해야 한다.

라. “Older Americans Would Work Longer If Jobs Were Flexible” by Minjoon Lee, Carleton University

- 미국의 자산운용업체인 Vanguard와 협업하여 Vanguard에 은퇴구좌를 갖고 있는 노령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은퇴 이전 근무조건을 파악하고, 이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의사가 있는 근무환경에 대해 문의하였다.
- 이를 통해 미국 노년층의 대부분이 추가적으로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들은 임금을 낮출 의사는 높지만, 근무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의사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율적으

로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마. “Macroeconomics and Household Inequality: Data, Models, and an Application” by Dirk Krueg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 거시경제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 연구는 표준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하고 경제 전반의 평균적인 통계치를 활용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실제 경제주체들이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 결과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분석을 내놓을 수 있다.
- 우리는 지난 2008년 발생한 미국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가격의 급락이 어떠한 부의 재분배효과를 가져왔는지, 세대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으로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세대들의 경우 상흔효과 (scare effects)가 발생하여 낮은 임금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가져오는 기성세대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제한되어 있었다.
 - 모의실험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한 대부분의 노년층이 지난 경제위기를 통해 많은 양의 재산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젊은 세대는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빠른 노동시장의 회복과 함께 큰 상흔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지난 Great Recession은 기성세대로부터 젊은 세대로 부가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

바. “Duration Dependence and Business Cycles” by Ismail Baydur,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 노동시장 내 실업자의 구직률은 이들의 실업기간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를 설명하는 두가지 가설이 있는데, 하나는 실업상태에 있으면 개인의 능력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업이 길어진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본래 낮은 생산성을 갖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이러한 두가지 가설 중 어떠한 매커니즘이 더 중요한 요인인지 확인해 보기위해 연구자들은 경제의 호황/불황에 따른 구직률의 변화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 만약 경기가 나쁘다면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 또한 실직하여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
 -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산성을 추론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 경기상황에 따른 정보량의 차이를 활용한 분석 결과, 유의미한 통계적 차별이 duration dependence를 만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본 연구자들은 노동수요측면을 충분히 endogenize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실제 불경기에는 실업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뿐 아니라 경제내 직장의 개수또한 감소한다. 이를 고려할 때도 연구자들이 제시한 실증분석방법이 유의미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연구의 경우,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재취업에 활용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실제 여성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한 기간동안 발생한 인적자본의 감소때문인가, 아니면 노동시장 내 차별때문인가? 이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첫 번째 단계일 것이다.

※ 워크숍 일정과 자료는 파일로 첨부함.